

파니움 - 넘버 파이프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 예언에 나타난 로마의 득세와 몰락

Jeff Pippenger

2025-03-05

다니엘서는 놀라운 예언적 서사를 펼치며, 2장의 금속 신상에서 11장의 복잡한 왕들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환상들을 관통하는 반복과 확대의 원리를 엮어낸다. 이러한 틀 속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해전은 기원전 30년 이집트의 몰락으로 귀결되며, 다니엘 11장 25, 26절의 중대한 성취로서 이교 로마의 360년간의 패권의 서막을 알린다.

다니엘서 11장은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 이후 제국들의 흥망성쇠로 시작한다. 그러나 14절에 이르면 전환이 일어난다. 기원전 200년경,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 맞서 파니움 전투를 준비하던 안티오코스 3세(마그누스) 때, 로마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개입했다. 헬레니즘 세계의 혼란 속에서 이집트의 밀 공급 확보를 우려한 로마는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기원전 200~197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예언적 역할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로마의 유대인에 대한 지배

기원전 63년으로 건너뛰면, 16절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급습해 지성소에 들어가고 "영광의 땅"에 대한 로마의 지배권을 확립할 때 성취된다. 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로마 인물들의 연속을 그린다.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복과 기원전 44년의 암살, 서기 14년에 끝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세금 부과 통치(누가복음 2:1에 언급됨), 그리고 서기 31년에 '언약의 지도자'가 꺾였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집행된 티베리우스의 치세가 그것이다. 예루살렘의 폼페이우스에서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티투스에 이르는 이 예언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한 로마의 지배를 보여 준다.

로마 장군의 성전 모독으로 시작해 로마 장군의 성전 파괴로 끝나는 역사적 흐름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를 드러낸다. 모독으로 시작해 파괴로 끝나는 이 역사적 선은 또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그분의 모독과 멸함을 포함한다. 진리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세째,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폼페이로 시작해 티투스로 끝나는 그 선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러 오신 그 주간의 바로 한가운데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십자가로 상징되는, 중간 시점의 성전 파괴가 포함된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진리의 표지를 지닌 예언적 선을 나타낸다. 그 절들이 나타내는 역사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언적 선들이 더 있지만, 그 선의 주된 주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지배이다.

연맹과 조약

23절은 유다 마카베오 휘하의 유대인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었을 때(마카베오 상 8장)인 기원전 161~158년으로 되돌아가면서 "반복하고 확대한다." 이는 로마의 독특한 제국

건설 전략—조약과 동맹을 통한 정복—이 선행 제국들과 구별되는 방식임을 부각한다. 24절은 이 단계를 마무리하며, 로마가 “요새들에서 그 계책을 미리 꾸미리니, 한때 동안이라”고 언급한다.

그와 맺은 언약 후에 그는 간사하게 행할 것이니, 그가 올라와 적은 무리로 강성하게 될 것임이라. 그는 평안히 들어가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이르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할 것이요, 노략물과 탈취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눌 것이며, 또한 그는 견고한 요새들을 치려는 그의 계책을 세워 한동안 그렇게 하리라. 다니엘 11:23, 24.

한동안

'against'로 번역된 단어는 'from'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로마는 자신의 계책을 'from'에서 도모한다. 구절의 'from'이라는 단어는 제국의 정치적·군사적 심장인 로마를 그 전략의 근거지로 가리킨다. '때'는 예언적으로 360년으로, 악티움 이후 기원전 30년에 이집트가 멸망할 때 시작하여,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떠난 서기 330년에 끝난다.

25절과 26절은 악티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남방 왕을 대적하여 자신의 힘과 용기를 떨쳐 일으킬 것이다. 남방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로 싸우려고 일어나겠지만, 그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계략이 꾸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고, 그의 군대는 휩쓸릴 것이며, 많은 사람이 살육되어 쓰러질 것이다. 다니엘 11:25, 26.

기원전 31년, '북쪽의 왕'으로서 로마를 대표하던 옥타비아누스는 '남쪽의 왕'인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를 상대로 거대한 해전에서 병력을 결집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매우 크고 강대한 군대'는 전략적 '계책'(아그리파의 전술)과 안토니우스 측 동맹들의 배신과 이탈, 그리고 전투 중 클레오파트라의 후퇴로 무너졌다.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이교 로마의 도전받지 않는 지배가 시작되었다. 이 360년의 기간, 곧 기원전 30년부터 330년까지는 로마의 패권이 본래의 요새를 중심으로 한 상태와 일치하며, 다니엘 8:11이 예언하듯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이 그 요새를 '무너뜨린' 때까지 이어진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폴을 택했을 때, 그는 로마 도시에 권력 공백을 남겨 교황교회가 로마가 상징하던 권좌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 그 행위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성취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은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요한계시록 13:2.

다니엘서 8장에서는 '성소'로 번역되는 서로 다른 두 히브리어 단어가 다니엘서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구별해 준다.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지상 대표들을 통해 묘사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을 보여 준다. 사탄의 지상 대표인 바벨론이 다니엘서의 서두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1장 45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정복한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대표되는 왕국들은 '건고한 성소'들이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도시는 모두 '건고한 성소'이며, 두 도시 모두 도시 안에 각자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판테온 신전은 로마 도시에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언적 서사에서 그 대응물이다. 바벨론과 로마 도시는 예루살렘의 모조판이다.

다니엘서 8장에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의 "miqdash"는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이전할 때 작은 뿔(이교 로마)이 "그의 성소의 자리"(로마 시)를 무너뜨리는 대목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13, 14절의 "qodesh"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2300일 후의 정결을 기다린다. 두 단어 모두 "성소"로 번역되지만, "miqdash"는 하나님의 요새 또는 이교의 요새를 가리킬 수 있는 반면, "qodesh"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된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힘의 성소'(로마 도시)는 야만족과 반달족이 로마 도시에 전쟁을 가져오면서 더럽혀졌다. 본문의 '군대'는 496년 클로비스로부터 시작되어, 538년에 오스트로고트족이 도시에서 축출되면서 교황 로마가 완전히 득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악티움에서 비롯된 예언적 흐름은 330년을 넘어 이어진다. 30절의 "깃땀의 배들"은 겐세리크 휘하의 반달족을 가리키며, 그들은 455년에 로마를 약탈해 서방 로마의 붕괴를 알렸다. 이어 교황 로마가 부상하여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통치했고, 나폴레옹의 베르티에 장군이 비오 6세를 체포함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기원전 30년부터 330년까지의 이교 로마 360년은 교황 로마의 1260년에 상응하며, 둘 다 세 번째 장애물(이집트, 오스트로고트)이 무너질 때 시작되었다.

현대의 "북방의 왕"은 40절에 등장한다. 1989년에 교황권은 레이건의 미국과 비밀리에 동맹하여(전차, 함선, 기병으로 상징됨) "남방의 왕"(무신론/공산주의)인 소련을 전복한다. 41절은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지목하는데—개신교 미국을 가톨릭 미국으로 바꾸는 것—42절과 43절은 이집트로 상징되는 유엔이 유엔(용), 바티칸(짐승), 미국(거짓 선지자)으로 이루어진 삼중 연합에 굴복함을 밝히며, 이 연합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45절은 이 권세의 종말을 "돕는 자가 없이"라고 예언하며, 그 상처는 41절에서 치유되지만 그 운명은 45절에서 확정된다.

기원전 31년의 악티움이 25절과 26절의 초점으로, 그 성소-요새에서 로마의 360년 통치가 시작된다. 14절을 단서로, 16절부터 31절에서 교황 로마로 전환되는 부분까지의 이교 로마 이야기가 이교 로마의 완결된 서사이다. 그 서사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다룬 흐름이다. 23절과 24절은 로마가 군사력과 결합하여 동맹과 조약을 통해 정복할 때 동원한 제국 건설의 과업을 가리킨다. 24절부터 31절의 마지막 표현까지는, 로마가 자신을 높이던 시기와 그 뒤따르는 몰락을 나타내는 두 부분으로 된 서사이다.

"정한 때"는 330년에 360년 기간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27절부터 31절의 마지막 구절까지는(그 마지막 구절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 표현된 교황권이 538년에 권좌에 올려진 때를 밝혀 준다) 최고 지배 360년의 기간이라는 맥락에서 이교 로마의 역사를 서술하며, 이어서 208년에 걸친 점진적 쇠퇴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24절의 '때'는 기원전 31년에 남방의 왕의 영역이 북방의 왕의 영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하여, 서기 330년에 북방의 왕이 동과 서로 분열됨으로써 끝난다. 서기 330년부터 538년까지 이교 로마는 점진적으로 붕괴한다. 이교 로마의 몰락의 여러 단계와 연관된 다양한 예언적 표지들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식하게 하는 예언적 기준점들이다. 다니엘 11장 14절의 성취로서 로마는 그 이상을 확증하며, 그렇게 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몰락을 통해서이다. 그 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스스로 높아져 이상을 세우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로마가 Chittim의 배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그 후 남쪽을 공격할 때, 그것은 앞선 경우와도 뒤의 경우와도 같지 않았다. 이는 이 지점부터 로마 권세의 몰락이 묘사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중 처음 네 나팔은 궁극적으로 서방 로마를 476년에 멸망에 이르게 한 네 주요 세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스스로를 높였다가 넘어질 때 그 환상이 세워진다. 그 예언적 환상은 로마의 몰락이라는 틀 위에서 전개된다. 서방의 이교 로마는 330년부터 538년에 이르기까지 몰락하였다. 교황 로마는 1798년에 몰락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역사에서 동로마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함락되었다. 그 세 차례의 몰락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인해 세워지는 환상의 일부이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한 네 백성의 강탈자들이 이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기원전 31년부터 330년까지 이교 로마는 세계에 대한 지배 속에서 "스스로 높아졌다." 330년부터 538년까지 이교 로마는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쇠퇴하였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은 "스스로 높아졌고", 1798년에 그들은 넘어졌다. 기원전 31년부터 330년까지 서로마는 자신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고 "자처하며 높아졌고", 330년부터 476년까지는 넘어졌다.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동로마의 중심으로 "격상시켰고", 1453년에 동로마는 넘어졌다. 로마의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는 각 시기에는 로마가 스스로 높아지는 때가 있고, 이어 그 몰락을 보여 주는 때가 있다. 이는 "또한 네 백성의 강탈자들이 이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robbers'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 어근의 기본 의미—뚫고 들어가거나 교란하는 것—에 더 부합하므로, 절도를 함축하는 'robbers'라기보다 'breakers'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용어는 단지 물건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경계, 법, 또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가리킨다. 성경 예언에서 로마는 그 파괴자이지만, 14절에서는 'robbers'로 번역되어 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로마는 철의 왕국이고, 7장에서도 네 번째 짐승이 곧 로마이다.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이 있었으니, 심히 무섭고 두려우며 매우 강하더라. 그 짐승은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켜 먹고 산산이 부수며, 남은 것을 그 발로 짓밟았고,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또 열 뿔을 가지고 있더라. 다니엘 7:7.

네 번째 짐승(곧 로마)은 '쇠' 같은 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장에서 쇠로 대표된 그 동일한 네 번째 왕국이기 때문이다. 7절에서 로마의 네 번째 짐승은 '부서뜨렸고', 그렇게 부서뜨릴 때 '그 나머지를 그 발로 짓밟았다.' 로마의 짐승은 철의 왕국이며, 산산이 부수고 남은 것을 짓밟는 그 특성은 박해의 행위를 나타낸다. 고대 이스라엘에 가해진 박해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또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너를 뒤쫓고 따라잡아 네가 멸망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에 청종하여 그가 네게 명하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은 네게 표적과 경이가 되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임하리라. 이는 네가 모든 것의 풍성함 가운데서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게 되리니,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모든 것의 궁핍 가운데서라. 그가 네 목에 쇠 멍에를 씌워 그가 너를 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독수리가 날아옴 같이 신속한 한 나라를 네게 대적하여 오게 하시리니,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나라요, 용모가 사나운 나라로서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젊은이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45-50.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위에 임한 저주들은 '표징과 이적이요,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그 저주는 '사나운 얼굴을 한 민족'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7장에서 '조각내고 남은 것을 짓밟는' 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또한 알렉산더의 왕국이 분열된 데서 나오는 네 번째 왕국이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왕국은 고대 이스라엘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민족이다. 다니엘 8장의 로마 왕국은 사나운 얼굴을 한 민족이며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다.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을 대신하여 넷이 일어섰으므로, 그 민족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의 나라 마지막 때에, 범법자들이 죄악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사나운 용모를 지니고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리라. 다니엘 8:22, 23.

'네 백성의 약탈자들(파괴자들)'은 환상을 확증하고, 스스로를 높였다가 몰락한다. 네 번째 철의 왕국은 이교 로마로서 스스로를 높일 때 절대 권세로 지배했지만, 그들의 궁극적 몰락은 그 환상을 확증하는 예언적 특징이 되었다. 그들이 '파괴자들'인 것은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